복권 후 첫 공식 행보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반도체부터 챙긴 JY…현장경영 보폭 넓힌다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기공식 참석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 만들자"
초격차 초석 다진 기흥서 새 도전
대규모 M&A 등 뉴삼성 속도낼듯



19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용 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제공 | 삼성전자

"40년 전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뜬 기흥사업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최근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1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나흘 만의 첫 공식 행보다. 이번 기공식 참석을 시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감한 기술 투자 강조

이날 행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계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정은승 DS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 진교영 삼성종합기술원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든다'를 기공식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해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번의 큰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기흥캠퍼스는 1983년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또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 1992년 D램 시장 1위 달성, 1993년 메모리반도체 분야 1위 달성 등 '반도체 초격차'의 초석을 다진 곳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차세대 뿐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말했다.

기흥 반도체 R&D 단지는 약 10만 9000㎡ 규모로 건설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중순 가동 예정인 반도체 R&D 전용 라인을 포함해 2028년까지 연구단지 조성에 약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DS부문 사장단 회의도 진행

앞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 보폭을 더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공식 이후에는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DS부문 사장단 회의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도체연구소에서 열린 DS부문 사장단 회의에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 및 리스크,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진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초격차 달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민간외교나 해외 네트워크 관리 등 제한된 활동만을 해왔다. 형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복권으로 이 부회장의 '뉴삼성'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향후 3년 내 의미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연내 회장으로 승진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부터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왔다. 현재 4대 그룹 중 삼성을 제외한 SK와 현대차, LG 총수들은 모두 회장 타이틀을 달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NHN, ESG 캠페인 '리틀액션 시즌2' 시작

NHN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리틀액션 시즌2'를 새롭게 시작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리필 스테이션 체험 행사를 9일부터 18일까지 가졌다. 리틀액션은 다양한 친환경, 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NHN의 대표 ESG 캠페인이다. 2019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시즌1에선 헌혈, 안 입는 옷 기부, 점자 도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뷰티 브랜드 '아로마티카'와 협업해 화장품, 바디용품 등의 내용물만 리필해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임직원들이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LG복지재단,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

LG복지재단은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92명의 아동에게 15억 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키로 했다. 192명의 아동 중 추가 치료로 키가 더 자랄 가능성이 높은 62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원을 받게 된다. 저신장아동은 성장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하지만 연간 약 1000만 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LG는 1995년부터 28년 동안 매년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전문의들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장아동 총 2083명을 지원해 왔다. 지원받은 아동의 키는 연평균 10센티미터, 최대 25센티미터까지 커졌다.

팔라우 날아간 박정호 부회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도와달라"

〈SK텔레콤〉

휩스 대통령 만나 지지 요청
유영상 CEO는 5G 협력 강조



박정호 SKT 부회장과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 유영상 SKT CEO(왼쪽부터). 사진제공 | SK텔레콤

SK텔레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CEO(최고경영자)가 18일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팔라우의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각 나라들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팔라우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론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휩스 대통령은 "팔라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휩스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G20과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유영상 사장은 팔라우의 통신 인프라를 5G로 고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앞선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5G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팔라우를 '5G Island'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팔라우는 현재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황으로 휩스 대통령은 SK텔레콤이 한국에 구축한 5G 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부회장과 유 사장은 팔라우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추념공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팔라우에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추념공원을 팔라우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내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명근 기자



KT, 올레tv 키즈랜드 캠핑 성황리에 마쳐

KT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모나파크 용평리조트에서 KT고객을 초청해 '올레tv 키즈랜드 캠핑' 행사(사진)를 진행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올레tv 키즈랜드 캠핑은 전국 각지의 인기 캠핑장 뿐 아니라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 등 새로운 장소에서 매월 행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캠핑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KT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2일 (월) 음력: 7월 25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움직인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인정에 치우치지 말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터지고 만다. 사업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취침 시 동북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오늘은 화개일이다. 그것도 불기운이 뜨거운 화개이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날이다. 자기의 재능을 표출하고 싶은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신중하고 묻기를 거듭해야 한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지도 않은 상속의 운도 있다.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무리수를 둘 수 있으니 매사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벌여놓은 일들은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오늘의 날씨

22일(월)

서울 30/60	24 29	인천 30/60	25 28	춘천 30/60	22 30
강릉 0/20	23 31	대전 30/20	23 31	전주 30/20	24 32
광주 20/20	24 32	대구 0/20	20 33	부산 0/0	22 30
창원 0/0	21 31	제주 20/20	26 31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9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